



제목	페르시아 원정기(아나바시스)
발행언어	한국어
발행처	도서출판 숲
발행일	2011. 8. 20.
저자	크세노폰 천병희 옮김
출판국가	대한민국
페이지수	382
ISBN 또는 ISSN	978-8991290419

내용 요약

이 책은 기원전 402/1년 페르시아의 왕에 대한 반란에 동참한 그리스인 용병대의 퇴각기이자 자서전이다. 페르시아의 왕 아르타크세르크세스 2세의 동생인 소퀴로스는 왕위를 찬탈하고자 그리스인 용병 11,000명을 모집하였다. 기원전 401년 9월 쿠낙사 전투에서 소퀴로스와 그리스 장군들은 전사하였다. 이에 그리스인 용병대는 지휘관과 목표를 잃은 절망적인 상태에서 적지에서 탈출해야 했다. 흑해 연안의 그리스 식민지들을 거치면서 냉대를 받았던 용병대는 식량마저 떨어지는 절망적인 상태를 경험하였다. 트라키아 왕자가 군사작전에서 자신을 도와주면 식량과 급료를 지급하겠다고 제의했고,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생존할 수 있었다. 그 사이 6,000명으로 줄어든 용병대는 기원전 399년 3월 스파르타 장군에게 인계되었으나 스파르타의 국내 정세 불안으로 무사히 귀향할 수 있었다.

크세노폰에게 이상적인 지휘관은 소퀴로스였다. 그는 소퀴로스가 페르시아 궁전에서 보낸 소년시절부터 쿠낙사 전투에서 전사할 때까지의 생애를 추도문에 적고 있다. 추종자들에게 충성을 이끌어내고, 훌륭한 군인들을 양성하고, 호의를 베푸는데 익숙하고, 보복과 응징을 철저하게 하는 이상적인 지도자였다. 성공한 지휘관과 실패한 지휘관의 자질에 대한 설명을 통해 크세노폰은 진정한 지도자를 갈구하고 있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크세노폰 자신이 술선수범하여 후퇴가 가능하였다는 주관적인 서술, 병사보다 지휘관에 초점을 맞춘 영웅사관에 대한 비판이 있지만 자서전적인 서술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옹호론도 있다.